

다산학 45호 (2024.12) | 279~302

계당桂堂 레귀돈黎貴惇의 이력과 작품 및 사상

전 티 뚜엣(Tran Thi Tuyet) |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석사

목차

- 레귀돈의 삶과 경력
- 레귀돈의 고향 및 가정
- 레귀돈의 대표 저작
- 레귀돈의 대표 사상

1. 레귀돈의 삶과 경력

계당桂堂 레귀돈黎貴惇(1726~1784)은 자가 윤후允厚이고 호가 계당桂堂이다. 그는 병오丙午년에 학자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호가 죽암이고 이름은 레푸트(1691~1781)인데, 훗날 레충트로 개명했다. 지엠하마을, 선남진(오늘날의 동푸촌, 독립사, 홍하현, 타이빈성) 출신이다. 레충트는 갑신년(1724)에 과거시험에서 진사에 합격했고, 레중흥조黎中興朝에서 형부상서를 맡았다.¹⁾ 레귀돈의 모친은 쓰엉씨 집안이며 응웬사마을, 쩌띠엔현(오늘날의 하남성) 인물이다.

레귀돈은 당시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공부를 좋아했으며 기억력이 탁월한 것으로 유명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부친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당시 학자들이 갖추어야 할 학문적 소양을 잘 갖출 수 있었다. 14세 무렵, 레귀돈은 부친을 따라 수도 탕롱으로 상경했다. 17세가 되자 그는 해원解元 향시에 합격했고, 27세에는 회원會元 과거에 합격한 후 정시에서 판타版沓에 급제했다. 대과에 통과한 그는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레-쩐 정권에서 여러 직책을 담당했다. 계유년(1753)에 레귀돈은 한림원시서翰林院侍書를 맡았다가 갑술년(1754) 봄에 국사관찬수國史館纂修에 임명되었다. 1757년에 그는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이 되었고, 1764년에 경북독동京北督同에 올랐다. 1767년에는 국자감國子監 시서侍書 겸 사업司業을 거친 후, 1768년에 찬리군수贊理軍務와 시부도어사侍副都御史를 담당했고, 1769년에 공부우시랑工部右侍郎, 1773년에 배송陪誦, 1775년에 이부좌시랑吏部左侍郎 겸 국사관총재國史館總裁, 1776년 투언화 진무鎮撫와 협진참찬군기順化鎮

1) 응오득토, 『베트남 과거시험합격자들』, 하노이: 문학출판사, 1993, pp. 680~681.

撫協鎮參贊軍機, 1783년에 응에안 협진協鎭, 1784년에는 공부상서工部尚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갑신년(1784) 4월 14일 레귀돈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784년(景興연간, 1740~1787)에 쩌동鄭棕(즉 쩌카이鄭楷, 1763~1786)이 레히엔똥黎顯宗(1717~1786)에게 레귀돈을 공부상서工部尚書로 천거했고, 레찌에우똥黎昭統(1765~1793) 조정에서 영군공穎郡公으로 불리었다.²⁾

레귀돈은 평탄한 관로官路를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관직에 있던 32년 동안 20번이나 직무를 옮겼다. 사신으로 중국으로 가는 기회(1760~1762)도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필요한 여러 자료와 지식들을 수집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레귀돈은 여러 차례 관직을 옮겼기 때문에 그는 늘 스스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느라 배우는 자세에 익숙했다. 그는 조정에서의 관료였을 뿐만 아니라 학자였다. 학자로서 그의 업적은 훨씬 더 많은데 철학, 법학, 사회학, 사학, 민속학, 천문학, 농학, 사전학 등 수많은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레귀돈은 뚜렷한 존재감을 남겼고, 그의 공헌은 시간과 더불어 인정받았다. 레귀돈의 정치 생활과 학자로서의 과학 생활은 동행했고 상호 보완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과학적인 업적이 더 내세울 만하고 후대에 뛰어난 성과를 남기고 있다. 처음 향시에 합격할 때부터 헤아리면 레귀돈은 42년 내내 책을 읽고 썼다. 그가 수집한 자료와 지식을 담아 편찬한 책들을 보면 그가 당대 최고 지성인의 자리

2) 관후이추, 『역조현장류자』 1집(인물지부분), 하노이: 사회과학, p. 391.

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레귀돈의 행장을 펼쳐보면 그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수많은 곳을 방문했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부지런히 붓을 들어 기록하고 썼음을 알 수 있다. 『건문소록』(1777)의 서문에는 그가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본래 일천한 사람이다. 어릴 때 책을 읽은 것을 좋아했고, 자라서 관료가 되었고, 책장에 둔 책들을 봤을 뿐이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현사와 대부들과 교류함이 많았다. 여기에 명을 받아 사방으로 공사를 하러 돌아다녔다. 북쪽으로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고, 서쪽으로는 편진 지역을 평정했으며, 남쪽으로는 투언판의 진수鎭戍를 맡았다. 가는 곳마다 무엇이든지 배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눈이 보고 귀가 듣는 일들은 모두 붓으로 기록한 다음에 개괄적인 평을 옆에 써 두었다가 책 보따리에 담아 두곤 했다.³⁾

그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그가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며, 그는 다시 그러한 기회를 통해 지혜를 축적하고 여러 글들을 창작할 수 있었다. 58년 동안 책을 통해 얻은 지식, 삶에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들과 함께 레귀돈은 베트남 봉건시대에 위대한 박학자가 될 수 있었다. 18세기의 모든 지식들이 레귀돈의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한 시대의 문화적 성과들을 기록한 큰 비석처럼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학자인 판후이추는 레귀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3) 레귀돈, 팜종띠엔 역, 『건문소록』, 하노이: 문화통신, 2007.

그는 널리 공부했고 붓을 손에 쥐면 문장이 저절로 나왔다. 시문의 골격이 청정했다. 문장의 뜻은 자연스러워서 생각하지 않아도 긴 강과 큰 바다처럼 흘러나왔으며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역시 대가라고 할 만하다.⁴⁾

사학을 연구한 반면은 레귀돈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다.

레귀돈은 18세기에 모든 베트남인이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레귀돈은 그야말로 18세기 베트남의 ‘말할 줄 아는 서재’라고 비유할 만하다. 위로는 천문, 아래로는 지리, 중간에는 인간…… 레귀돈은 모르는 게 없었다. 그의 이해가 이처럼 넓고 깊었다.⁵⁾

2. 레귀돈의 고향 및 가정

지엠하마을(오늘날의 홍하현, 타이빈성)은 선남진에 속한다. 이 지역은 홍강이 흘러 지나가는 물줄기가 많은 지역이자 동쪽 지방의 중요한 교통중심지였다. 북으로 거슬러 오르면 포히엔이 있고, 강을 따라 더 올라 가면 탕롱 수도에 도착할 수 있다. 남으로 배를 타고 내려가면 바다에 닿는데, 그곳으로부터 타인화, 응에안, 하띤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번

4) 판후이추, 『역조현장류지』 2집, 하노이: 청춘, 2014, p. 259.

5) 타이빈성, 문화통신부서, 『레귀돈의 공헌들』 세미나자료집, 타이빈: 레귀돈 탄생 250주년 기념회, 1976, p. 259.

돈, 하이닝을 거쳐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 옛날 푸허우 항구는 국내의 상인들이 잘 머물던 곳이었다. 관후이추는 이 땅이 “영화榮華의 기가 모인 곳으로 중부 지역의 병풍과 같다.”라고 하면서 “학문에 뛰어난 인물들이나 현명한 신하들이 으뜸으로 나오는 땅이다.”라고 칭찬하곤 했다.⁶⁾

생전에 레귀돈은 지엠하 고향에서 두 차례 정도 생활했다. 첫 번째(1731~1739) 시기는 그가 6살부터 14살까지였다. 그에게 이 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레귀돈은 시서詩書의 가정에서, 풍요로운 마을과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그의 문화적인 인격과 정신과 정서를 함양하는 귀중한 토양이 되었다. 이런 시골 생활은 레귀돈의 호방한 민간적 품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레귀돈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활한 두 번째(1767~1769) 시기는 그가 성공한 다음이었다. 그는 여러 곳을 방문했고 우여곡절을 경험한 끝에 하이즈영성의 참정參政 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간 때였다. 이때 그는 풍부한 내력과 지식을 갖췄으며 삶에 대한 경험도 풍부해졌고 인생과 시세도 잘 알고 있었다. 삶과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물과 현상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을 때였다. 이번 시골 생활 동안 그가 시골 생활에 대해 배우고 정보를 얻으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한편,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쓰는 데 힘을 기울였다. 관료 생활을 하던 초창기에 쓴 책들에 비해 이 시기에 쓴 책들은 더 다양하고 깊으며 실제적인 지식들이 더 풍부하게 담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족에 대해서 말하자면 레귀돈은 레푸트 진사의 장남이자 쓰영민르영 황태후의 외조카였다. 진사를 거치고 레푸트는 한림원에서 관직 생

6) 관후이추, 『역조현장류지』 2집, 하노이: 청년, 2014, p. 266.

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골의 간편하고 청담한 생활에 친숙하고 게다가 솔직한 그의 성격은 조정과 지주들의 생활 방식과 분위기에 어울릴 수 없었으며, 그 또한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지위를 뺏고 빼앗기는 일을 지속했다. 한림원에서 지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는 하이즈영의 감찰어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다음에 레푸트는 탐관오리의 죄를 고발한 상소를 올린 사건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는 지엠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더불어 청담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레귀돈은 공부를 좋아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날이 거듭 확장해 나갔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레푸트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레귀돈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6세가 되자 경서의 문제들에 대해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죽암선생은 틈나는 대로 아들을 시험했다. 레귀돈이 8, 9세가 되자 『논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공자가 선비에 대한 자공의 질문을 대답한 대목에서 “몸가짐에 염치가 있어야 하며, 사방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임금의 명命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레푸트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레귀돈은 “염치를 아는 건 어렵습니다. 사신이 되어 나라에 영광을 가져오고 왕의 명命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레푸트가 “내 아들이 호연지기가 두텁구나.”라고 하면서 “의지가 당연히 호방해야 하고, 품격은 사육하면 안 된다. 굴복하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딱딱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덧붙였다.⁷⁾

일반적으로 이는 8~9세의 아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

7) 레귀돈, 전티방타인 역, 『계당시집』, 사법대학교, 2019, p.19.

이었지만 레귀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주한 여러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평생의 방침으로 삼았다. 레귀돈한테는 시대를 앞선 지혜와 지기가 풍겨 나왔는데, 이러한 기개를 어릴 적부터 보여주었다. 죽암선생의 친구인 추응웬럼은 6세의 레귀돈을 보고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유장나무처럼 한 아름 정도 커지면 천 길만큼 높아질 것이고, 봉새처럼 태어나자마자 구 만 리를 날아오를 것이다. 이 아이의 발걸음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⁸⁾ 이 말은 레귀돈이 베트남 봉건시대에 위대한 학자이자 뛰어난 외교가가 됐을 때 사실로 드러났다. 고향과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기품으로 레귀돈은 당시대의 인물이 되었고, 시대를 뛰어넘는 인물로 거듭 성장했다. 그의 고향과 가정은 그의 든든한 발전을 뒷받침해줬고, 그는 고향과 가정에 뛰어난 이름으로 보답했다.

3. 레귀돈의 대표 저작

레귀돈은 베트남에서 유교가 가장 풍부하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던 시기에 태어났고, 본인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며 기여했다. 18세기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베트남 봉건 시기의 박학한 지식의 집대성자로 평가받는 그는 후대의 학자들에게도 관심을 받는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18세기 지식들은 레귀돈의 작품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작품들은 문화적인 업적이자 시대의 큰 축을 형성했다. 레

8) 레귀돈, 쩌티방타인 역, 『계당시집』, 사범대학교, 2019, p.18.

귀돈의 저작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이론과 현실이 결합되면서 형성된 지혜들을 담고 있다. 관후치추의 『역조헌장류지』에 따르면 레귀돈의 저작은 16책에 이른다.

1. 『음즐문주陰鷺文注』(2권), 2. 『명신록名臣錄』(2권), 3. 『역경부설 易經膚說』(6권), 4. 『황월문해皇越文海』(10권), 5. 『견문소록見聞小錄』(3권), 6. 『여조통사黎朝通史』(30권), 7. 『연주시집聯珠詩集』(1권), 8. 『무변잡록撫邊雜錄』(7권), 9. 『계당시집桂堂詩集』(4권), 10. 『계당문집桂堂文集』(3권), 11. 『군서고변群書考辨』(4권), 12. 『국조속편國朝續編』(8권), 13. 『전월시집全越詩集』(20권), 14. 『서경연의 書經衍義』(3권), 15. 『치사장문집致仕幃文集』(4권), 16. 『운대류어 臺類語』(4권)이다.

1761년에 전반지압이 『운대류어』 번역본을 출판하면서 쓴 책의 소개문에서, 까오쑤언후이는 레귀돈이 5종에 13작품의 저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5종이라는 것은 역사, 시문, 경전, 철학, 그리고 종합이다. 『계당유집』, 『시설』, 『예설』, 『역설연산』, 『귀장』, 『금강주해』, 『도덕경연설』, 『국음시문』 등도 레귀돈의 저작으로 여겨질 만한 가능성을 지닌 작품들이다. 타이빈성의 과학도서관에서 만든 『레귀돈 목록』(1976년)에는 그의 저작수가 48책에 이른다.⁹⁾

쓰엥꽁함에 따르면 레귀돈은 레왕조 말기의 박학자로 많은 책을 편집했고 직접 저술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소실된 점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아쉽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책들을 놓고 보면 베트남의 역사, 지

9) 응웬파이동, 「레귀돈의 이기론에 있어서 본체론문제」, 철학 8호(243), 2011, p. 27~28.

리 및 문화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한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로 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이 5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경전과 전에 대한 강론: 『역경부설』(6권), 『서경연의』(3권, 1772년에 인쇄됨),¹⁰⁾ 『춘추략론』.
- 고서에 대한 조서 및 연구: 『군서고변群書考辨』(4권, 1757년에 인쇄됨),¹¹⁾ 『성모현범 聖謨賢範錄』(12권, 1761년에 주배련과 홍계희의 서가 있음), 『운대류어芸臺類語』(4권, 1773년에 씀).¹²⁾
- 시문 수집 관련 서적: 『전월시집全越詩錄』(관후이추에 따르면 20권이나 15권만 현존, 1768년 레히엔퐁의 명을 받아 집필한 어제본으로 베트남의 리왕조부터 후레왕조까지의 시문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오늘날 베트남의 시가와 시문을 고찰할 때 가장 중요한 귀중한 자료다), 『황월문해』(뛰어난 글들을 뽑아 모은 책이다).
- 역사 기록 및 지리에 대한 연구서: 『대월통사大越通史』[1749, 다른 이름으로는 『레조통사』라 한다. 30권으로 구성된 이 통사는 레태조(레라이)부터 레궁황(작가의 범례에 따라)까지의 역사 사건들을 기록한 기년체 역사책이다, 『국조속편』8권, 레짱똥(1533)부터 레지아똥(1675)까지는 고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기록한 편년체의 역사책이다, 『북사통록 北使通錄』4권, 1763년에 씀. 사

10) <http://www.hannom.org.vn/detail.asp?param=1659&Catid=475>

11) <https://archive.org/details/quanthukhaobien/page/14/mode/2up>

12) 전반지압의 번역본 (1961): <https://archive.org/details/van-dai-loai-ngu/page/n1/mode/2up>

따꾸앙팻의 번역본(1995)도 있다. 이 번역본은 3권으로 되어 있고 한자 부분도 수록되고 있다. <https://archive.org/details/van-dai-loai-ngu-t-1/V%C3%A2n%20%C4%90%C3%A0i%20Lo%E1%BA%A1i%20Ng%E1%BB%AF%20t3/page/n281/mode/2up>

신으로 외국에 갈 때(1760~1762) 산간, 여정, 편지, 공문,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다,¹³⁾ 『무변잡록撫邊雜錄』(6권, 1776년에 씀. 18세기에 당쥬(오늘날의 베트남 중부, 특히 투언화 및 껑남 지역-오늘날 베트남의 중부)의 사회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다,¹⁴⁾ 『견문소록見聞小錄』(12권, 1777년에 작자의 서가 있다. 전왕조부터 레왕조까지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기록서이다),¹⁵⁾ 『음즐문주』(그의 가족이 1781년에 인쇄한 2권의 책으로, 중국의 가정에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여기에서 작자의 정정하는 말이 수록되어 있다), 『역대 명신인행록』(2권, 왕조들의 명신에 대한 행적을 쓴 책) 등이다.

시문 관련 저술은 『연주시집』 4권이 있는데, 레귀돈과 다른 시인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가 사신으로 청나라에 갔을 때 청나라와 조선의 시인들과 화답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계당시집』은 4권이 있고, 『계당문집』은 3권이 있다. 그 외에 نوم(Nôm)으로 쓰인 몇 작품들이 레귀돈의 저작으로 추정되지만, 『북사통록』에 수록된 글만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13) <http://www.hannom.org.vn/detail.asp?param=2324&Catid=225>

14) 한문으로 된 문서는 하노이국립대학교 전자도서에서 참고 가능함.

https://repository.vnu.edu.vn/handle/VNU_123/53364

https://repository.vnu.edu.vn/flowpaper/simple_document.php?subfolder=53/92/72/&doc=53927266296537778518127605220475423878&bitsid=5be6082a-4bfe-48fb-850d-ab8f18e5362d&uid=

15) 한문으로 된 문서는 하노이국립대학교 전자도서에서 참고 가능함.

https://repository.vnu.edu.vn/handle/VNU_123/53366

https://repository.vnu.edu.vn/flowpaper/simple_document.php?subfolder=63/32/84/&doc=63328424885578176726095044537259702629&bitsid=26a1a6eb-a0bc-42d7-98ba-f0164b14dd8f&uid=

레귀돈의 관직 생활은 3시기로 나뉘 볼 수 있다. 그의 저작들도 이에 따라 그의 생각과 사상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1) 1764년 이전 시기

레귀돈은 자신의 꿈에 열정을 담아 이상과 소원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간 청년이었다. 그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을 찾으려고 당시 공황에 빠진 사회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가용한 최대의 정치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상적인 고민은 레귀돈이 향시를 합격한 이후에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올 때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그는 『대월통사』(1749년에 저술), 『국사속편』, 『군서고변』(1757년에 저술), 『성모현범록』(중국에 사신으로 가기 전에 저술, 즉 1760년 전에 저술), 『북사통록』(1780년에 저술) 등을 집필했다. 이 시기는 레귀돈이 자신의 뜻을 가장 최고조로 품을 때였다. 자신감과 자율성을 지닌 레귀돈은 ‘술 이불작’의 견해를 뛰어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하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로 두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유가의 경전을 다시 탐독하고, 중국의 역사와 베트남의 역사를 연구했다. 이 시기에 레귀돈은 많이 쓰고 빠르게 작업들을 완성하여, 연구와 창작의 두 방면에서 본인의 능력과 전형을 확립했다.

아마도 베트남 유학사를 통틀어 레귀돈은 과학적으로 회의하고 논쟁하는 데 모범을 보이면서 옛사람에 대해 재검토한 유일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인정된 문제들을 다시 꺼내서, ‘고’와 ‘변’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정립했다. 청나라의 예부원외랑 신조무가 『군서고변』을 읽고 난 다음 레귀돈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

진, 한 이후부터 시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평론하고 평가하였지만, 송과 원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책을 묶어 더 이상 읽지 않는 자도 생겨 근거 없는 말들만 하거나, 글자와 문장을 다듬는 데 집중할 뿐인 자가 많았다. 사학은 연구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¹⁶⁾

레귀돈이 송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놓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레귀돈은 독서에 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사가 기록한 일들은 아무리 완벽해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독서하는 사람이 어찌 글자만 보고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⁷⁾

이 말에서 그는 고서적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자료들과 서적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행정 공문이건 예술 작품이건 간에 그는 기록하고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대월통사』와 『북사통록』은 이러한 그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그는 또한 연구자가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그 자료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새로운 견해를 찾고 새로운 설명 방식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침은 레귀돈의 평생 동안 저술하는 데 적용된다.

16) 레귀돈, 전반꾸엔 역, 『군서고변』, 하노이: 사회과학, 1995, p. 54.

17) 레귀돈, 전반꾸엔 역, 『군서고변』, 하노이: 사회과학, 1995, p. 68.

2) 1765년부터 1767년 가을까지의 시기

레귀돈이 관직에 머문 기간은 10년이었다. 레귀돈은 왕조의 무기력과 나라의 실제 상황은 물론 동료들의 질투심도 목격했다. 불편스러운 마음과 암담함에 그는 자신의 10개 죄를 나열한 계啟를 올리고 스스로 사직했다. 그런데 이 계의 내용을 보면 찔쨌앙鄭杓(1711~1762)의 무정함과 배신에 대한 그의 비난과 포기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고향에서 3년을 지낸 그는 책을 쓰고, 학생을 가르치며, 책과 강산을 재미로 삼았다. 이 시기에 그는 『전월시록』, 『태을간이록』, 『황월문해』, 『지학정통』, 『금감록주해』 등을 썼다. 관직을 그만두고 책을 쓰고 가르침에 전념한 그는 부이후이빅裴輝璧(1744~1818) 등과 같은 후학을 양성했다. 이 시기에 작업한 작품들 중에 『전월시록』이야말로 베트남 문학의 귀중한 시들을 간직한 자료다.¹⁸⁾

3) 1767년 가을 이후부터의 시기

관직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난 후 레귀돈은 복직되었다. 그때부터 그

18) 부티타인의 『레귀돈의 문학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끼친 요소』(사회과학 1호, 2023)에서 평가한 내용 참고. (2023): DOI: 10.56794/KHXHVN.1(181). p. 119~128: 『전월시록』을 편찬할 때 레귀돈이 2세기 전에 팜푸띠엔, 황득르엉, 찌엥득느안 같은 학자들의 성과를 계승했고 『전당시』와 『송원시회』의 분류법을 참고했다. 그 덕분에 “시가 모든 색을 초월한 아름다움이며 모든 맛을 초월한 맛이다.”라는 황득르엉의 아주 까다로운 선정법을 피할 수 있었고, 찌엥득느안이 선정하지 않은 율시를 보충했다. 그는 여성의 시도 받아들였다. 『전월시록』으로 레귀돈은 수집 작업에 있어서 신중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이 책으로 레귀돈은 민족에게 소실될 뻔한 예술 작품들을 전할 수 있었고, 연구자들에게 체계 있고 정확성이 높으며 소중한 자료를 남겨주었다. 게다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시와 시평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과 시를 수집하고 평한 경험들을 참고할 수 있다.

는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뜻을 펴면서 활동할 수 있었다. 국자감에서 중한 직책을 맡은 레귀돈은 다음과 같은 책들을 썼다. 『서경연의』(서문은 1772년에 씀), 『예설』, 『시설』, 『역경부설』 등이다. 한편 그는 계속 기록하는 방식으로 『무변잡록』(서문은 1776년에 씀)을 집필했고, 종합적인 작품들에 해당하는 『운대류어』(서문은 1773년에 씀), 『건문소록』(1777년에 씀) 등을 완성했다. 이 시기에 레귀돈은 책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과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깊은 문제들에 대한 해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 레귀돈의 대표 사상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제껏 레귀돈에 대한 연구들은 몇몇 지점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 레귀돈의 유학 사상은 중국의 여러 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그중에 송유의 영향, 특히 주희朱熹(1130~1200)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 영향은 그의 경전 주해와 고찰 업적들에서 확인된다. 레귀돈은 베트남 유학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의 경전 주해와 고찰 업적은 철학, 정치, 문학, 사학, 도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지식 분야를 아울렀고 후세 베트남 학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유의할 점은 레귀돈이 공맹유학을 기반으로 해서 송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특히 주희의 격물格物방법론과 성리학에 대해 그렇다. 레귀돈의 저서들을 검토한 결과 개별적인 학설을 세우지 않았고 자연, 사회 및 인간에 대해 논한 철학적인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은 여러 저작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쓰였고 거기에 는 일관된 하나의 체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어떻게 보면 그는 다음과 같

은 내용들로 자신의 철학 경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1) 자연철학 경향¹⁹⁾

이 경향은 레귀돈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것은 세계, 만물 및 인간의 근원, 근본원리, 형성 과정, 세계가 변화하는 원리 등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기론(『운대류어』 및 『서경연의』), 천지만물과 인간의 감응적인 관계, 만물일체사상(『운대류어』, 『견문소록』, 『서경연의』), 신, 귀신, 점술, 풍수(『운대류어』, 『견문소록』, 『군서고변』) 등이다.

고찰을 통해서 레귀돈의 이론이 집중적이지 않고 산만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일관된 하나의 방향이 보인다. 레귀돈은 송유학자들처럼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이론 체계를 세우는 것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상은 충분히 깊고 넓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의 이론을 가지고 이理와 기氣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전개했다. 그것은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서의 기,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 천지만물의 감응적인 관계, 귀신, 풍수지리, 점복 등이다. 레귀돈은 천지, 만물 및 인간의 끊임없고 다양한 변화와 능동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만물과 만사를 관통하는 것에는 물리성과 영성이 함께 결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천지만물과 인간이 동일체의 근원부터 시작되고 결정된다. 영험적이고 선험적인 이 관계는 천지와 귀신이 존재하며 풍수지리와 점사 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그 영험적인 관계를 알아보고 천지의 법칙대로 활동

19) 연구프로젝트 *The thoughts of Vietnamese scholars of Confucian classical studies in the 18th century* (Le Quy Don, Pham Nguyen Du, Ngo Thi Nham), The research is funded by NAFOSTED, under grant number 603.01-2020.01, Project Manager Assoc. Prof. Nguyen Tai Dong 자료 참고.

하는 것을 알아간다. 레귀돈의 세계관에 대한 논점들을 통해서 몇 가지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레귀돈은 송유(송유)의 이기론에 의거해서 세계에 대한 시야를 확정하였지만, 그 세계관에는 만물일체의 관점과 천지, 만물, 인간의 영험적인 감응의 관계가 있다. 이 관점들은 한유에서 받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의 실제적인 경험과 서적을 통해서 얻은 넓은 지식들과 심지어 서양의 과학까지도 결합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지식들은 순수하고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생동적이고 풍부하면서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레귀돈은 융통성 있고 실제적인 사유를 보유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철학 경향²⁰⁾

이 경향에서는 레귀돈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언급했다. 민족국가 의식, 민본사상, 민의, 민족 문화를 지키고 발전하는 데 경학과 사학을 중요시한 사상, 이상사회 건설 사상, 경방제세사상, 실학과 개혁사상, 왕정에서 왕-관료-선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사상 등이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대월통사』, 『군서교변』, 『무변잡록』, 『서경연의』, 『운대류어』, 『성모현범』 등에 녹아 있다.

레귀돈의 사회철학 경향은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당시대와 후세에 이르기까지 가치가 있다. 그의 사회철학 사상은 3가지의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선인들의 고민, 본인의 실제적인 정치 활동과 경험, 그리고 당시 정치 및 사회가 규정한 흐름이

20) 연구프로젝트 *The thoughts of Vietnamese scholars of Confucian classical studies in the 18th century* (Le Quy Don, Pham Nguyen Du, Ngo Thi Nham), The research is funded by NAFOSTED, under grant number 603.01-2020.01, Project Manager Assoc. Prof. Nguyen Tai Dong 자료 참고.

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개인적인 요인 외에 중화의 고문학, 특히 그 핵심인 유학과 18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가 그의 강한 개혁 정신과 사회철학의 경향을 형성하게 했다. 레귀돈의 사회철학 사상은 그가 살던 시대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학문의 맹아와 무역과 경제가 발전하는 초창기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 그의 사회철학 사상은 한편으로 유교적인 사회철학의 원리들을 준수하고 지키며 확장하는 한편, 더 합리적인 이론 요소들과 중용의 방향으로 왕도와 패도를 결합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이 이원론적인 사유 방식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사유이며, 새롭게 싹이 트고 있는 문화, 사회, 경제, 사상의 요인들이 자라도록 격려하고 긍정하는 그의 마음을 반영한다. 베트남 사상사에 있어서 유신의 위치에 처한 학자로서 레귀돈은 관중管仲의 패도정치를 칭찬했고 치국의 거울로 삼았다. 인의를 근간으로 한 권변의 정신은 레귀돈 사회철학의 특색이자 가치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지닌다. 레귀돈은 ‘천지인을 관통한다’²¹⁾는 뛰어난 유학자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의 사회철학이 당시 정치계에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었다면 당시 사회와 정치를 레-쥘조정의 안정과 발전을 만회하고 조율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데 18세기말 장기적이고 심각한 모순에 빠진 베트남 사회에서는 학문과 정치에 권위가 있는 대신이었던 레귀돈의 실질적이고 변증법적인 사회철학 사상이라 할지라도 널리 알려지거나 계승되거나 학파로 발전해 나가지 못했다. 레귀돈 이후에는 유교의 극단적인 사회철학 사상이 옹웬

21) 레귀돈, 『군서고변』, 하노이: 사회과학, 1995, pp. 50-51. 청나라 광서성 제독提督인 주배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레계당의 의지가 권위에 드러나는 데 예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법을 제정하는 데 번잡하지 않고 사람을 쓰는 데 친한 자와 재능이 있는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농사의 일은 농민과 병사를 구분하지 않고 문관과 무관은 동등한 권한에 두고 있다.”

왕조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었고, 독존의 위치를 다시 차지하면서 교조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3) 인본철학 경향²²⁾

『군서고변』, 『서경연의』, 『운대류어』, 『견문소록』 등에서 통치 문제의 정치적인 근거를 논할 때, 레귀돈은 인성, 인심도심, 도덕 및 수양, 인식 문제 등에 대해서 같이 논했다.

레귀돈은 수양의 이론과 강상의 원리를 논하지 않았고, 정치에 있어서의 도덕과 수신의 문제를 고려했다. 덕행은 정치의 출발점이고 근본이다. 정치가 수신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도덕은 정치 활동에서 유일한 것은 아니다. 왕의 수신은 왕의 정치 활동들 중에 주된 일이다. 레귀돈은 도덕적인 기준들을 마련했고, 군자의 덕목으로서 일반인부터 왕과 관료에 이르기까지 도덕에 대한 많은 덕목을 제시했다. 왕에게는 ‘경’, 관료에게는 신중함, 검소, 책임감, 청렴 등이다. 이러한 도덕적인 기준은 레귀돈의 저작에서 자주 언급된다. 아주 구체적인 도덕 수양에 대한 덕목들이다. 이는 역으로 레귀돈 사유의 실용성과 실질성을 보여준다. 인식 이론의 문제들 중에 레귀돈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격물지치학을 높게 보았고, 인식 능력과 지혜, 사유와 판단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 유학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레귀돈은 실제적인 지식을 중요시했고, 허황하고 무익한 지식을 비판했다. 그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널리 읽고 많이 이해하며 실제와 접촉하고 편견 없이 지식을

22) 연구프로젝트 *The thoughts of Vietnamese scholars of Confucian classical studies in the 18th century* (Le Quy Don, Pham Nguyen Du, Ngo Thi Nham), The research is funded by NAFOSTED, under grant number 603.01-2020.01, Project Manager Assoc. Prof. Nguyen Tai Dong 참고.

접해야 한다고 봤다. 사물을 연구할 때 현상이 아니라 원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그는 다른 사상과 학파의 관점을 열려 있는 입장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물론 베트남 사상의 관용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레귀돈은 성리학의 틀에 맞게 인성과 수양에 대한 사상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관용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융통성이 많은 사유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그의 사상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번역자: 진송옥

(Tran Tung Ngoc,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지리학전공, 박사과정)

(계재확정일 2024년 10월 18일)

참고문헌

- 판후이추(Phan Huy Chú), 『역조헌장류지』 1집, 하노이: 사회과학, 1992.
- 판후이추, 『역조헌장류지』 2집, 하노이: 청춘, 2014.
- 레귀돈(Lê Quý Đôn), 전반꾸엔 역, 『군서고변』, 하노이: 사회과학, 1995.
- 레귀돈, 전반집압 역, 『운도류어』, 하노이: 문화통신, 2006.
- 레귀돈, 팜종딤엠 역, 『건문소록』, 하노이: 문화통신, 2007.
- 레귀돈, 『성모헌법』(철학원이 소장한 번역본), 철학원 자료.
- 레귀돈, 응오테롱 및 전반꾸엔 역, 『서경연의』, 하노이: 문화통신, 2014.
- 레귀돈, 전티방타인 역, 『계당시집』, 하노이: 사범대학교, 2019.
- 응오득토(Ngô Đức Thọ), 『베트남 학자들』, 하노이: 문학, 1993.
- 르엉미번(Lương Mỹ Vân), 『레귀돈과 정약용 —서경주해에서 정치사상
까지』, 하노이국립대학교, 2022.
- 편집반, 『레귀돈, 베트남 18세기의 박학자』, “레귀돈의 과학적인 공헌”
전문회의 자료집, 레귀돈 탄생 250주년 기념행사, 타이빈성과
문화통신부서 출판, 1979.
- 응웬뚜언끄엉(Nguyễn Tuấn Cường), 「레귀돈의 『사서약해』에 대한 연
구」, 한-눔잡지 6호(103), 2010.
- 응웬파이동(Nguyễn Tài Đông), 「레귀돈의 이기론에서의 본체론문제」,
철학잡지 8호(243), 2011.
- 부티타인(Vũ Thị Thanh), 「레귀돈의 문학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끼친 요
소들」, 사회과학잡지 1호, 2023.

연구프로젝트, 『18세기 베트남 경학자들의 사상(레귀돈, 팜응웬주, 응
오티넴)』, 기호: 603.01-2020.01, 주임: 응웬따이동부교수, 박사.

<https://archive.org>

<http://www.hannom.org.vn>

<https://repository.vnu.edu.vn>

국문요약

레귀돈은 베트남 18세기의 걸출한 유학자이자 정치가다. 그는 베트남 봉건시대의 지성사 전체를 집대성한 박학한 사람이다. 레귀돈의 저작들은 정치, 경제, 철학, 문학, 역사, 지리 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보면 레귀돈은 베트남의 학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레귀돈 인생의 발자취와 고향, 그의 작품과 대표적인 사상 경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주제어 | 계당 레귀돈, 베트남 유학, 베트남 철학.

